

재즈를 듣다 10

블루노트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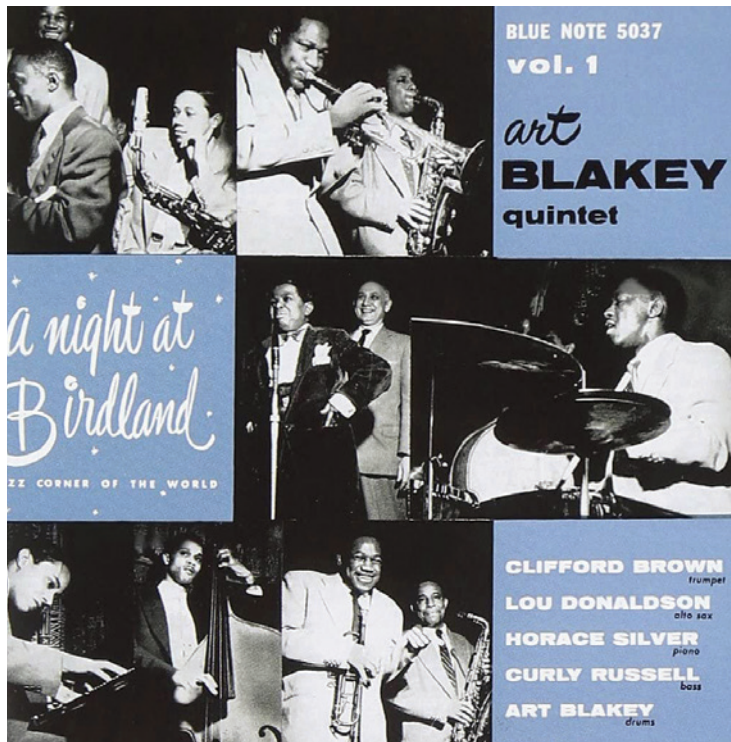
초기 불교는 싯다르타 사후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모여 수행하는 작은 공동체였다고 한다. 대승불교가 등장하자 철학적 사유가 심화하기 시작해 '유식'(唯識)과 '중관'(中觀)이라는 깊고 방대한 사상을 낳았다. 이처럼 최초의 담백했던 메시지가 시간이 흐르며 고도의 추상성에 이르는 경우를 역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근대'와 함께 등장한 모더니즘과 뒤이은 다다이즘, 인상주의, 초현실주의와 같은 풍조의 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19세기 말에 태동한 재즈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격동의 20세기와 궤를 같이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소박했던 초기 불교와 비슷하게 초기 재즈 역시 흥겨운 댄스 음악일 뿐이었다. 대승불교가 인간 싯다르타 대신 법신 불이라는 상상의 존재를 상정한 것과 같이 비밥(Be-bop) 재즈 역시 기존과는 다른 고도의 추상성을 띠기 시작했다. 대승불교에서 유식과 중관 사상이 만개했듯, 재즈 역시 '하드밥(Hard Bop = Hot Jazz)'과 '쿨 재즈(Cool Jazz)'로 나뉘어 각각 독특한 예술 장르로 변모한 것이 상당히 필연적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압구정동 인근에 '오렌지족'이라는 철딱서니들이 설

치고 다녔던 1990년대에 US3라는 재즈 힙합 밴드가 '칸탈롭(Cantaloup)'라는 음악을 히트시켰다. 원곡은 허비 행콕의 '칸탈롭 섬(= Cantaloupe Island)'이다. 음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회자의 안내 말이 흘러나온다.

"Ladies and gentlema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 a recording for Blue Note Records."

선사 숙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밤엔 버드랜드에서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블루노트 레이블을 위한 녹음입니다.

원래 이 말은 1954년 2월 21일에 뉴욕 버드랜드에서의 공연 실황 음반인 '버드랜드의 밤(= A Night at Birdland Vol.1)'에 수록된 것이다. 출연진은 아트 블레이크(Art Blakey, 드럼), 클리프드 브라운(Clifford Brown, 트럼펫), 루 도날슨(Lou Donaldson, 알토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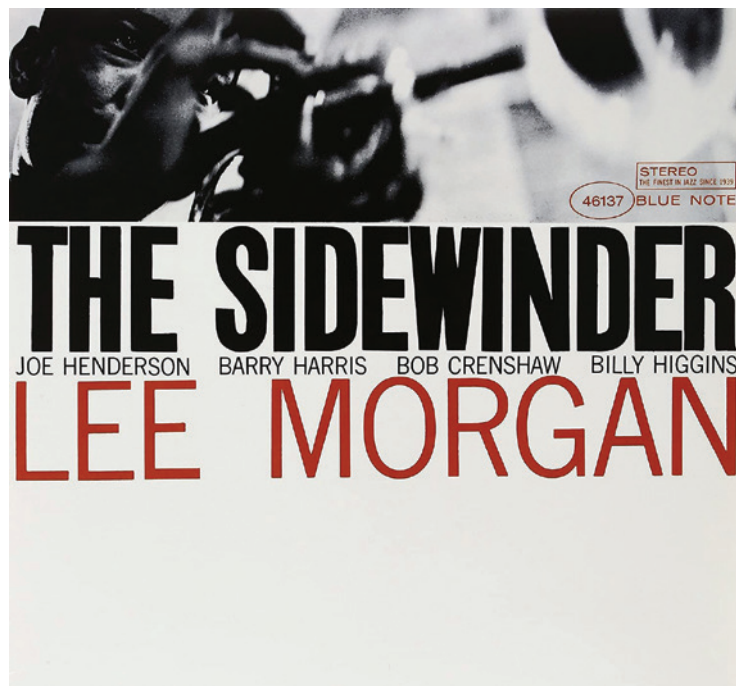
버드랜드의 밤 / 출처 : amazon.co.uk

소폰), 호레이스 실버(Horace Silver, 피아노), 컬리 러셀(Curley Russell, 베이스)이다. 하드밥의 시작을 알린 상징과 같은 작품이다.

보통 블루노트(Blue Note), 프레스티지(Prestige), 리버사이드(Riverside)를 모던 재즈 3대 레이블이라고 한다. 이 중 블루노트는 하드밥 그 자체로서 이름만으로 대다수 재즈 팬을 두근두근하게 한다. 백 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즈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950년대 전후 10년 세월을 지배했던 하드밥이야 말로 과거,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미래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는 장르가 아닐까? 이 레이블은 독일 베를린 출신의 알프레드 라이언(Alfred Lion)이 1938년 12월 23일 행해진 ‘영가에서부터 스윙까지 (= From Spirituals to Swing)’ 공연을 보고 감동하여 재즈 음반 제작자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2018년엔 ‘블루노트 레코드(Blue Note Records: Beyond the Notes)’란 다큐멘터리가 개봉해 다시 한번 재즈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진사인 프란시스 울프가 찍은 음반 표지는 블루노트를 블루노트답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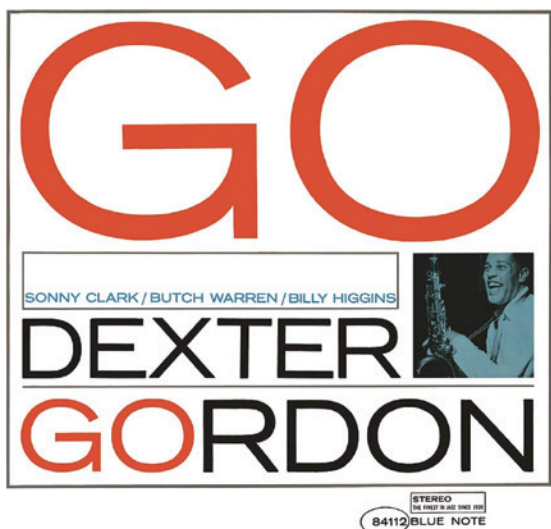
개성 있는 인물 사진 촬영에 뛰어났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명반 중 하나인 ‘블루 트레인(Blue Train)’, 버드 파웰(Pud Powell)의 ‘놀라운 버드 파웰(The Amazing Bud Powell)’, 소니 롤린스(Sonny Rollins)의 ‘블루노트 1559 볼륨.2(Blue Note 1558 Vol.2)’ 행크 모블리(Hank Mobley)의 ‘쏘울 스테이션(Soul Station)’ 등. 이로 인해 지금도 블루노트는 CD보다 LP를 선호하는 경향이 유독 짙은 것 같다. 블루노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은 리 모건(Lee Morgan)의 ‘방울뱀(Sidewinder)’과 호레이스 실버(Horace Silver)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Song for my father)’라고 한다. 두 장은 조금 모자란 듯 하니 여기에 텍스터 고든(Dexter Gordon) 음반 ‘가자!(Go!)’를 추가해도 좋겠다. 블루노트의 하드밥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 세 음반을 우선 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피아니스트 쏘니 클락(Sonny Clark)이 1958년 발매한 ‘허세부리며 걷기(Cool Struttin)’는 한국 재즈 팬들에겐 조금 특별한 음반이다. 90년대 중반 한국에 다소 비정상적인 재즈 유행이 몰아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한 긍정적 영향으로 라디오에서 재즈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색소폰 주자 이정식 씨가 진행했던 ‘0시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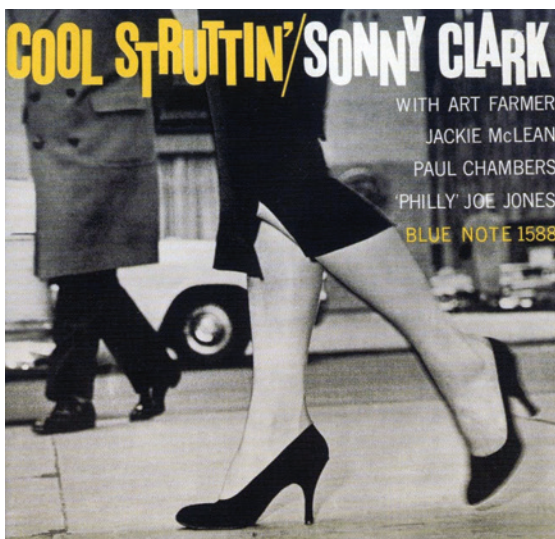
리 모건의 '방울뱀' / 출처 : amazon.com



호레이스 실버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 / 출처 : amazon.co.jp



덱스터 고든의 '가자' / 출처 : amazon.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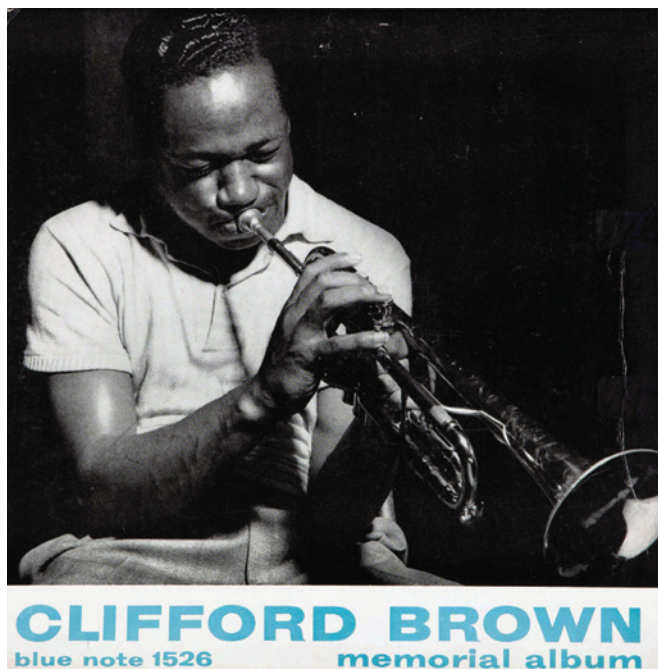
쏘니 클락의 '허세부리며 걷기' / 출처 : amazon.co.uk

즈'다. 시그널로 사용된 음악이 이 음반 첫 곡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드밥 장르에는 워낙 쟁쟁한 천재 연주자가 즐비하다. 그중 나 나름 상징성을 겸비한 세 인물을 선정해 보려 한다. 첫째, 요절한 천재, 클리포드 브라운(Clifford Brown). 재즈 팬이 모여 역사상 최고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를 굳이 꼽는다면 루이 암스트롱과 클리포드 브라운 두 명을 우선 뽑아 놓은 뒤 다음 인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로 설전을 벌일 것 같다. 그만큼 클리포드의 연주력은 압도적이다. 파워풀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궁극(?)의 톤을 보유했다. 사진을 보면 최소 마흔 살은 넘직한 얼굴인데 26세에 사망했다. 그의 사망은 참으로 어이없는 교통사고였다. 유행처럼 번졌던 마약에는 손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연주에 임했던 젊은이였기에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사고 다음 날, 아폴로 극장에서 공연 중이었던 디지 길레스피 악단의 멤버들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막간에 전해 듣고는 모두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공연은 진행되었지만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도저히 제대로 연주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최고 콤비였던 드러머 맥스 로치(Max Roach)의 상심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작 블루노트에서 클리포드 브라운이 발표한 정규 음반은 1956년 '추모 음반(= Memorial Album)' 뿐이다. 물론 명반으로서 손색이 없긴 하다. 이 음반은 1953년에 발매한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사운드(=New Faces-New Sounds)'와 '떠오르는 신예(=New Star On The Horizon)'를 합한 것이다. 본인이 '떠오르는 신예'로서 블루노트에서 아트 블랙키, 루 도날슨, 제이제이 존슨(J. J. Johnson) 등등의 사이드맨을 하며 충분한 내공을 쌓은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대다수 명반은 엠알씨(EmArcy) 레이블에서 나왔다.

둘째, 즉흥 연주 천재,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그의 특기(?)는 빠른 속주로 모든 마디에 음표를 빼곡히 채우는 것으로 이를 '시츠 오브 사운드(Sheets Of Sound)'라 부른다. 엄밀히 말해 두 가지 이유로 그를 블루노트 소속의 하드밥 연주자라고 부르기 어



클리포드 브라운의 '추모 음반' / 출처 : hussarrecor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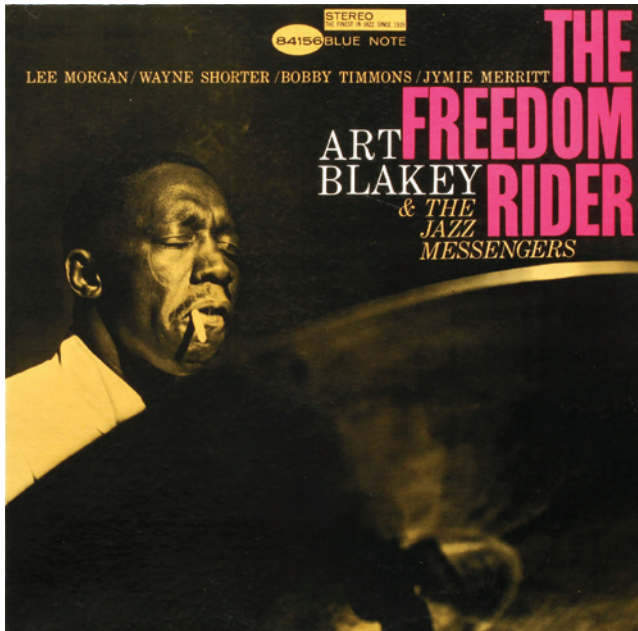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 / 출처 : amazon.co.jp

려운 면이 있다. 우선, 이 레이블에선 '블루 트레인' 단 한 장의 음반만을 발매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음반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 할 만큼 크다. 또한 전성기 분출하던 천재성은 그를 하드밥 영역에만 머물게 하질 않았다. 1960년엔 아틀란틱(Atlantic) 레이블에서 거인의 발자취(= Giant Steps)를, 1965년엔 임펄스(Impulse!) 레이블에서 '최고의 사랑(= A Love Supreme)'이란 음반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론 블루 트레인과 더불어 이 세 음반을 콜트레인의 대표 명반으로 꼽는다. 콜트레인이야말로 찰리 파커 이후 압도적인 연주의 천재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드밥 이후 재즈씬을 선도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셋째, 초지일관 하드밥, 아트 블레이크(Art Blakey). 재즈가 폭넓었던 대중성을 잃고 예술 쪽으로 쏠리며 당시에 막 불기 시작한 락앤롤과 디스코의 인기로 밀리면서 블루노트 레이블도 어려워져 결국 1979년 EMI에 흡수 합병되었다. 새옹지마라더니 EMI에서 블루노트 미발표곡들을 더한 새로운 기획으로 재발매해 성공을 거두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과거 블루노트 소속 재즈 뮤지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1985년 2월 22일에 개최한 '블루노트와 함

께한 하룻밤(= One Night with Blue Note)'이란 공연이 대박을 터트렸다. 당연히 이 자리에 아트 블레이크도 등장했다. 최고 드러머 중 한 사람으로 남들이 어떤 재즈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하드밥만을 고수해 장인 정신을 느끼게 한다.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무당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표정이... 거의 '무아지경 + 황홀경'이다. 이미 많이 연로해 드럼 스틱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힘들 만도 하건만 쇠퇴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공연은 일본에서였던 것 같은데 제대로 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었고, 공연 후 온통 땀 범벅이 되어 실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런 후회 없이 저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21세기에 블루노트 레이블을 먹여 살린 대표 인물은 하드밥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재즈 가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노라 존스(Norah Jones)다. 2002년 발매한 데뷔 음반인 '나랑 떠나자(Come Away With Me)'가 2016년 기준 무려 2천 7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비틀즈 덕분에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인도 악기 시타르(Sitar) 명인인 라비 샹카르(Ravi Shankar)다. 하지만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트 블레이크 / 출처 : londonjazzcollector.wordpress.com

모친의 성인 ‘존스’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노라 존스의 등장은 어쩌면 블루노트뿐만 아니라 오늘날 재즈가 처한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재즈 팬에게 하드밥은 지금도 여전히 심금을 울리는 장르임이 틀림없지만, 냉정하게는 구시대 유물이 돼 버린 것이다.

93.1MHz 라디오에서 매 주말 ‘재즈 수첩’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한 평론가 황덕호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재즈에 대해 말하길 “나에게는 피붙이지만,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는 못난 형 같아요. 외로운 음악”이라고 표현했다. 웬지 이 말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구시대 유물은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기는커녕 또 하나의 클래식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했다. 지금도 소수의 10대, 20대 중에는 해묵은 블루노트 연주를 들으며 종교 체험과도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가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



노라 존스의 ‘나랑 떠나자’ / 출처 : bluenote.com



버드랜드의 밤



리 모건의 ‘방울뱀’

호레이스 실버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클리포드 브라운의
‘추모 앨범’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블루노트와 함께한
하룻밤덱스터 고든의
‘가자’

이번 호 수록곡 유튜브 QR 코드